마야투어
MAYA TOUR
맞춤식 여행
☎ 02)722-9001
신상의 정통교 법계지를 밟혀진 마야투어!

佛教新聞

bulgyo.com

불기 2557년 6월 22일 (2013년 / 정기 434번째 회차 5월14일)

대표전화 (02)730-4488 제2922호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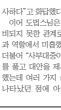
千年의 香을 듣는다
www.cwh.co.kr ☎ 054-933-6371
1960년 1월 2일 창간 주간회 발행

"쇄신결사 지속되도록 '최선' 종무원 적극 관심 가져달라"

총무원장 자승스님, 신뢰·결사 의지 표명
제2기 결사추진본부장에 도법스님 재임명

제2기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에 도법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도법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무원장 스님이 이날 말 "3년간 임기를 마치는 도법스님을 재임명한 것은 전폭적인 신뢰와 열매 결실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봅니다.

총무원장 스님은 임명장 수여 후 "원광대도 출범했지만 종무가 원만하불교문화를 스홈페 함으로써 자성과 쇄신 결사가 전제돼 것"이라며 "결사가 진행되면서 종단 안팎에서 힘든과 테클이 있었지만 이것이 모두 밑거름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종단내 상이는 6월30일까지 활동이 한정됐음에도 결산장인이 임명장 등 많은 일을 진행해 실행단계에 와 있다"며 "결사추진본부도 활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해왔다. 결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시간을 할아지고 새로 나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법스님은 "결사추진본부 주변되지 못한 관계로 심심찮이 애향과 애향에서 미래했다"고 자평했다. 더불어 "사부대중이 주체가 돼 문제를 풀고 대안을 제시하며 결의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한계가 나타났던 점에 아쉬움이 크다"며 "남은 시간 이 부분을 채워나가는데 노력해줬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도법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뜻을 받아 종단이 결사를 시작했던 첫 마음과 바람대로 심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진계사 달무원장 생명평화 1000일 정진단에 가끔 들는으셔 신들이 없을 때가 많다"며 "중생중무기관 교역자로 세계 종무원들이 관심을 모고 봉선이 돌아가 않도록 선결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교해된 교역자 스님들은 결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느껴진다"며 "많은 관심을 가지길"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3면

김리영 기자 hyerim@bulgyo.com

34년차를 맞은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대전, 공주일대에서 열렸다. 사진은 18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대회의 기념사진. 대회사에 참가한 일본 대표단 일행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국 대표단 일행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주일대에서 열렸다. 사진은 18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대회의 기념사진. 공주=김정주 기자 jjuni@bulgyo.com

마음의 문 열고 '상생의 손' 잡자

공동체 의식 '최우선' …한일불교 교류대회 성료
세계평화 위한 민간교류협력 '공동선언' 채택

"불무평등 미래를 극복하고, 불제자로서 부처님 오신 뜻을 위해 공동체 의식을 최우선 가르침으로 삼자. 시로가 의지해야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상생의 세계를 위해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야 한다."

올해로 34년차를 맞은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지난 18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대회'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열렸다. 이날 본대회는 교류협의회장 자승스님도 조계종 총무원장의 대회사로 시작됐다. 대회사에서 자승스님은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양국간 공동체의식을 회우선 가치로 삼아 한다"며 "사법과 오해 를 관이해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서로를 이해해 건설할 수 있도록 양국간 가교 역할을 충실해게 수행해야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인 연등축제,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을 통해 세계인과 소통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불교문화를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측 교류협회 회장 마다 바야시 쇼겐스님은 "최근 한일 양국 간 역사갈등 하이에 의해 종종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1400년 전 백제 성왕 때 불교가 전해지면서 문화와 민족이 뿔린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그때 전했에 의해 한국에 고난을 주 사실은 유감스럽기 그지없으며, 깊이 반성하게 된다. 정치 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불교는 연기공론의 이념 하에 양국 간 연대를 살아 불교 가치를 실현해는 수행자들이 놓아가 해 전통문화와 보존과 계승이 어떻게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양국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는. 선언문에서는 스님 본 간 5대째 이면 원타를 부정해는 동시에 근본적 불교정신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 스한일 간 갈등국면 타파를 위해 여사를 직시하고 대대적평하인 만일 관계 반드시 노력해 것 스하는 문화 민간교류 제 보아에서 중단 시킬 간에 교류를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한일 양측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광수사, 원학사, 개태사 순례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 예방을 끝으로 회향했다.

공주=안자수 기자 jujam@bulgyo.com

제3대 군종교구장 후보 정우스님

군종교구 상임위 만장일치 추천
사병 매 군법당 2곳 창건 '유명'

제3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후보에 서울 구룡사 원주 정우스님(전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사찰이 추천됐다.

군종교구 상임위원회(의장 자광스님, 교구장)는 지난 18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회의를 열고 신임 군종교구장 후보에 정우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정우스님은 조선간 총무원장 자승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공식 취임식에 참석, 스님의 앞가는 모든 기필코임무를 다해간다다.

정우스님은 1968년 통도사에서 휴법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71년 통도사에서 월파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9·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통도사 주지, 총무원 총무부장, 불교방송 이사 등을 지냈다. 서울 강남에 구룡사를 창건하는 등 도심포교의 선구자로도 이름이 높다. 무엇보다 3대대처 군교에 남다른 애정을 쏟은 군포교 공로자다. 특히 육군 36사단에서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군법당 2곳을 창건한 것으로 유명해져.

지난 2005년 출범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군 장병에 대한 전법과 군대 사찰의 건립과 운영 등에 기여해 오고 있다. 신라에 서 4000개 계고 군법당을 관리하며 1400명 정의 군승이 활동하고 있다.

장영섭 기자 fanti@bulgyo.com

지면안내
승가고시 예시문 공개 2면
무비대가 노동기도 스님들이 '의장' 맡으시죠… 4면

무산 무적등대에 선화가 성각스님 해룡의 세계 13면

우리말 의례 막 오르나

한글전수경기 6월 종회 성정

한글전수경기 이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194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종단 의례위원회가 16차 회의를 열고 한글전수경 회종분을 결의한 데 이어 18일 종무원의에서 이를 중앙종회에 동의의원을 하는 결정했에 따라, 한글전수경 공보가 가시화되고 있다. 반이하고, 불원대해 이어 원수경까지 한글공보 년, 사찰에서 예불할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의례의식문이 한글화가 일단락되다. 특히 한글전수경 회종분 이 나오기까지 의례위원회는 지난 한 논의를 거쳤다. 지난해 10월 14개월간의 논의 끝에 한글 전수경 초본을 공개한 뒤에도 8개월이 시간이 더 소요된 것이다.

이번 회종분에는 삭제 의견이 제기됐던 광명입장심이조종, 심야유 등, 지상사용사항을 존재시키기로 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의례위원장 안덕스님은 "다라니의 경우 한글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음을 의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사시불공 시시 등 가장 많이 쓰는 의식 순으로 한글화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례위원회는 한글판 아심경 가운데 논란이 됐던 '공갈고통에서 건지느니라' 등 '공갈 고통에서 건너느니라'로 문안 수정할 것을 결의해, 이해 임시종회에 상정해기로 했다.

이현경 기자 ecrossroad@bulgyo.com

社告 불교신문 법보시캠페인

이제은 이웃과 포교한장에
불교신문을 보냅시다 (구좌 5,000원

불교신문 법보시는 또하나의 도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포교의 손끝이 닿지 못하는 이웃을 이웃과 포교현장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 을 시작합니다. 비록 한 장이 신문이지만 포교의 한발 이상 앞장을 뛰고 있는 다시 포교현장이 생기면 교도소, 군부대, 병원 등 포교대상 곳곳이 이 필요한 현장에서 불자님들의 자비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금이 좋은 법보시이에 자기 자신과 주변을 위한 선업을 맺는 일입니다.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 참여는 나 혼자 나만의 세상에 부처님 법을 전달 수 있는 종자씨앗을 주는 일입니다. 나눔의 기쁨에 많은 동참 당부드립니다.

▶ 캠페인제시입부 (02) 730-4488 | 본지전용 (010-4157-4406)

명상으로 정영하라 ...구글, 애플, 삼성, 아후, 나이키
명상으로 질주하라 ...리오넬 메시, 타이거 우즈
명상으로 몰입하라 ...휴 잭맨, 짐 캐리, 올랜도 블룸
뇌를 움직이는 마음의 비밀
명상에 답이 있다

명상에 답이 있다

〈마음 vs 뇌〉, 〈붓다브레인〉 등을 통해 뇌를 움직이는 마음의 비밀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한국 심리학계의 거장 정한갑 교수의 대중 명상 안내서

이 책에서 저자는 명상을 할 때 일어나는 뇌파의 변화와 자율신경계 등 최근의 뇌파학 연구 성과를 독자들에게 소개함과 동시에
호흡명상, 자비명상, 마음챙김명상, 이미지 힐링 등 각종 질병의 치유와 감성, 공감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명상법에 대해
책을 읽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명상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고 명상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는 것을 경험적이고 과학적으로 잘 보여준다_ 전한수 (신경정신과 전문의)
명상의 과학적 효과에 대한 심층분석과 이나라 실행에 초점을 맞추었다_ 김광한 (요스페 명도학장, 한 보스톤 고개정신아카데미 원장)

장한갑 지음 / 222쪽/부록 · 양장두 CD) / 13,800원

장한갑 지음 / 222쪽/부록 · 양장두 CD) / 13,800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 등으로 재직했으며 한국심리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5년 영국국제인명센터(IBC)로부터 '세계 100대 교육자'로 선정되었고, 2006년 '명예의 전당(Hall of Fame)'에 영구 헌정되었다.
또한 같은 해 미국인명센터(ABI)로부터 '500인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 2009년에는 '2009 Man of The Year 50인'으로 선정되었다.

전화 (02) 765-1251 담앤북스